

EBS '바둑교실' 5.13~14일

'스승의 날' 기념 교사바둑대회

교육전문방송 EBS가 바둑프로그램인 바둑교실 800회 방영을 기념해 오는 5월 13일과 14일 EBS 사옥에서 전국 초중고 교사바둑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1990년부터 바둑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양상국 8단은 "첫 방송을 시작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16년이 지난 세월이 흘렀다.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 스승의 날을 맞아 현직 교사들과 수업을 나눌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마련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1970년에 입단한 양 8단은 전문기사회장과 성균관대 사회교육원 바둑과 주임교수를 역임했으며 한겨레신문 관전기 집필 등 다양한 바둑 관련 활동도 펼쳐 왔다.

참가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EBS(www.ebs.co.kr) 또는 한국기원(www.baduk.or.kr) 홈페이지에 접속 후 대한바둑협회 경기운영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

'후지쓰배' 한국 바둑의 보약!

이창호·이세돌·박영훈 등 5명 8강 진출
올 메이저 대회 잇단 부진 탈출 '신호탄'

메이저 대회에서 부진의 늪에 빠진 한국바둑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한국은 지난 10일 막을 내린 제19회 후지쓰배 세계바둑선수권 2회전에서 이창호 이세돌 박영훈 최철한 박정상 등 무려 5명이 8강진에 올라 대회 9연패를 가시권에 뒀다.

한국 바둑팬들은 오는 6월3일 북경에서 열리는 8강전 결과에 따라 '한-한' 결승국을 편안하게 관전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한국 기사간 결승 대국도 무려 6차례다.

한국에게 후지쓰배는 홈그라운드나 다를 없는 독무대다. 18차례 대회 가운데 무려 11차례나 우승을 차지했다. 1998년 이창호 9단이 결승에서 중국의 장하오 9단을 꺾은 이후 8연패를 이룩할 만큼 초강세다.

한국이 패권을 거머쥘 경우 감화가 남다르다.

지난해 6개 국제 메이저타이를 가운데 4개를 쓸어담은 뒤 올해 뚜렷한 이유없이 세계대회 무관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올초 삼성화재배와 농심신라배, 강원랜드배, 여자기전인 정관장배까지 놓쳐 '한국 바둑 2006년 대관살'까지 제기되는 등 체면을 구겼다.

후지쓰배는 이같은 우려를 일거에 털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8강에 오른 기사들 가운데 이창호 9단은 대회에서 2차례나 우승을 차지한 관록을 자랑하는 등 만년 우승후보다.

그로서는 이 대회가 최근 메이저대회에서 외국기사들에게 연패를 당한 데 대한 설욕의 기회다. 그는 지난 1월 삼성화재배에서 중국의 위시허 9단에게 달미를 잡힌 데 이어 지난 2월농심신라배 세계바둑 최종전에서도 일본의 요다

노리모토 9단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 때문에 '외국기사들 칼라'라는 명성이 퇴색한 것은 물론 '이창호 바둑 위기사'까지도 제기됐다.

이세돌 9단은 2002년과 2003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우승을 차지, 후지쓰배 최강 기사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한국 부진의 사슬을 끊어 줄 가장 유력한 기대주다.

'반집의 승부사' 박영훈, '독사' 최철한도 우승 후보 0순위라는 데 이의가 없을 정도로 탁월한 행마를 보이고 있어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8강전 막차에 합승한 박정상 5단은 이번 대회 최대 다크호스로 분류된다.

우러서러온 건 8강전에서 이창호 9단이 이세돌 9단과 격돌한다는 것. 한국으로서는 우승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잃어야만 하는 운명이다. 최철한 9단은 일본의 유기 사토시 9단과, 박영훈 9단은 중국의 저우허양 9단, 박정상 5단은 장하오 9단과 8강전에서 격돌한다.

과연 한국바둑이 후지쓰배 패권을 차지해 바둑 최강국의 자존심을 회복할 지 관심을 모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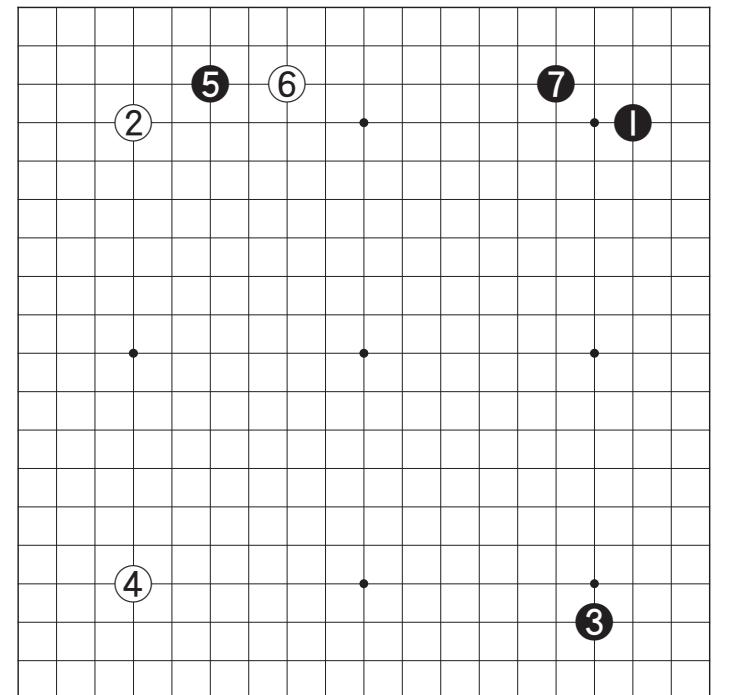


바둑계의 '제왕'

결승 1보(1~7)

白 이창호 9단 <엠편>

黑 조한승 8단 <타이젠>



조한승 8단이 이창호 9단을 물리치고 엠편의 주장 이창호 9단을 물리치는데 성공했다. 이 판이 최종 결승전인 것이다.

이창호 9단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세계 바둑계의 제왕이다. '바둑황제' 조훈현 9단의 문하생으로 출발, 13세 때 바둑왕전 타이틀 획득을 시작으로 통산 최다연승(41연승), 최고 승률(86.7%), 최다관왕(13관왕) 등 각종 기록을 갖고 있다. 또 세계대회 19회 우승이 백을 잡은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작성하고 있는 한국 바둑계의 대물보요, 대표기사다.

첫 타이틀인 바둑왕전 우승이 88년이었으니 벌써 18여년 전의 일이다. 이창호 9단에게는 권력의 무상

함을 일컫는 '권불신년'일 수도 있지만 열을 붙은 뜻이 없다는 '화무십일홍'이라든지 하는 금언들이 통하지 않는 바둑계의 불가사의라 할 수 있다.

그런 이창호 9단도 벌써 30세를 훌쩍 넘어 프로기사 랭킹 1위를 지키고 있는 있지만 최근 슬럼프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선지 누가 이 9단의 권좌를 이어 받을까가 바둑계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물을 가린 결과이 9단이 백을 잡았다. 4까지의 포석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흑이 좌상귀 5로 걸쳐가 백은 6으로 협공에 나섰다. 흑은 협공을 무시한 채 7로 우상귀를 굳혔다.

<규원 9단·본지 바둑해설위원>



아시안 게임서 바둑경기 불 날 온다

바둑연맹, 국제경기연맹 가입

정식종목 채택 가능성 높아

세계바둑연맹이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14일 한국기원에 따르면 GAISF는 최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총회에서 바둑의 정식 가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바둑은 앞으로 체스의 경우처럼 아시안게임 등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바둑보다 먼저 GAISF에 가입한 체스는 12월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바 있다.

그러나 일본기원은 바둑의 스포츠화에 반대 의견이 강하다. 한국기원은 바둑의 스포츠화를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대한체육회가 스포츠 인정에 회의적이어서 바둑의 체육회 가입 여부가 6월로 연기된 상태다.

러시아 등 동유럽이나 중국, 그리고 네덜란드 등 유럽은 이미 바둑을 스포츠에 포함시킨 데 반해 정작 바둑 역사가 깊은 일본과 한국은 스포츠 인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IGF의 GAISF 가입도 지난해 4월 베를린에서 창설된 IMSA(International Mind Sports Association)라는 단체의 회장이자 국제 스포츠계의 실력자인 프랑스의 호세 다미아니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KB국민은행 2006 한국바둑리그' 출범 조인식



국민은행은 최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기원, 바둑텔레비전 등과 국내 최대규모의 바둑대회인 'KB 국민은행 2006 한국바둑리그' 출범 조인식을 가졌다. 리그에는 조훈현, 이창호, 이세돌 등 국내 최고 기사들이 출전하며, 정규리그(4월20일~11월30일)와 포스트 시즌(12월) 일정으로 진행된다.

영화안내: Happy Time, 영화안내

메가박스: 구.런던역사거리, 11월 4일 개봉

엔터시네마: 주창장이 편한 극장, 11월 4일 개봉

컬럼버스시네마: 하남점 상무점, 11월 4일 개봉

정우부동산: 남평 수원리 1중주거 400평, 방화 덕목리 2천평매도

한국공인중개사: 장성지역, 공장부지, 물류창고

대인부동산: 교원전문, 목욕욕방, 샤프트

엑스포공인중개사: 시구, 평민동 신축주택, 힐스테이트

아름다운부동산: 무료, 상가건물, 모텔매매

첨단월계공인중개사: 첨단중심 상업지역, 첨단 원룸 건물매매

국민공인중개사: 건물, 매매교환, 유류전문매매

부동산 광산공인: 신항지구 토지매매, 수왕지구 토지매매

부동산 광산공인: 수왕지구 토지매매, 수왕지구 토지매매